

# “사계절 즐기는 보성으로”…해양레저 중심지 만든다

해양수산 르네상스 가동…관광·정주 인프라 강화  
수산자원 회복·정주여건 개선 등 4대 사업 켜걸음

보성군은 2026년을 해양수산 르네상스를 여는 해로 선언하며,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보성 바다’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일 보성군에 따르면 해양수산 르네상스 전략은 특량만권 해양레저 중심지 조성, 여자만권 국가 해양생태 거점화, 수산자원 회복, 어촌·섬 정주 여건 혁신 등 4대 핵심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량만 오폐물 일대는 국가어항 지정에 따라 총 717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진행된다. 군은 2026년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방파제, 접안시설, 안전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남해안권 해양거점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폐해양복합센터(441억원)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 50%를 달성했으며, 국내 최고 수심의 다이빙 풀(41.5m)과 딥서핑 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시설로 조성돼 전국 래저 마니아들의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256억원), 오폐 청년활력 은(ON) 플랫폼(105억



보성오폐해양복합센터 조감도

원) 등을 연계 추진해 청년 창업, 비치마켓 거리, 문화·체험 콘텐츠가 어우러진 사계절 해양레저 복합 지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군 최대 역점 사업인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2026년 본격적인 예타 조사가 진행된다.

총사업비 169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갯벌 복원, 철새 서식지 확충, 생태교육 시설 건립 등을 포함한 유네스코 세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성빨배 어업

계자연유산인 별교갯벌을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을 구축한다.

특히 보성빨배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보성만의 자산으로 2027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인증 절차를 추진 중이다. 등제가 확정된다면 보성 갯벌의 인류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다.

보성별교갯벌 생태탐방로도 조성사업(494억원)은 올해 1·2구간이 준공되며, 장암과 해도를 이어주는 3구간도 착공을

시작해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교꼬막 리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투입해 혁신 등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수산물지리적표시 제1호 ‘별교꼬막’의 명성과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매년 수산종교 매입·방류사업, 어구·미끼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정

화사업 등을 병행해 어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청정 어장을 실현하고 있다.

군은 어촌과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 기반 확충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장도·해도 등 섬 지역에는 2026년 ‘어복버스’ 사업을 도입해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호산항 어촌뉴딜300사업(78억

원), 군농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50억원)이 2026년 최종 준공되며, 해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49억원)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관련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항만 기능 개선, 생활SOC 확충, 정주 여건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촌 인구의 안정적 정착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mh66@gwangnam.co.kr

## 국제도시 광양, 도심 주차난 ‘몸살’

차량 급증·불법주차 일상화…교통사고 우려 커  
주차타워 등 대책 마련 성토…시 “아직 미검토”

국제 철강 항만도시를 표방하는 광양시 도심이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차량 증가 속도를 주차 인프라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법 주차가 일상화되고,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2021년 15만2036명에서 지난해 15만7636명으로 56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등록 대수는 9만1008대에서 10만3648대로 1만2640대 늘어, 차량 증가폭이 인구 증가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연평균 약 3160대의 차량이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중마동과 광양읍권 등 주요 도심 지역은 상습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왕복 2차선 도로와 이면도로 곳곳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점령되면서 실제 통행은 편도 1차선으로 줄어들고,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한빛인대도 주차하는 차량들로 왕복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변해버린 광양시 광양읍 한 주택가 도로

광양시는 상권 보호를 이유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광양시가 보유한 주차장은 총 452

개소, 1만7553면(노상 2164면·노의 1만5389면)이지만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도심 거리가 사실상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상인과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평면 공영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광양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공영주차장이 협소해 손님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잦다”며 “영업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마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도 “점심시간이면 주차 공간이 없어 식당 주변을 몇 바퀴씩 도는 일이 다반사”라며 “주차타워라도 지어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올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약 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도 “도심지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단계”라고 해명했다.

광양=김귀천 기자 lkkjin@gwangnam.co.kr

## 고흥,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특수목적법인 사업 협력 방안 논의

고흥군은 최근 군청 흥양홀에서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 사업이다. 이에 따라 참여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 공공 재정 투입과 민간 자본 참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자협회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민간

주도·공공 지원형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해수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3월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 완료를 목표로 기관별 핵심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상반기 중 민간기업과 소규모 양식 어가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순천, 나무은행 활용 예산 절감  
기증 수목 공원·녹지에 재활용

순천시는 지난해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목과 기증 수목을 공원·녹지 조성에 재활용함으로써 63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시는 조례동, 왕지동, 낙안면 등 3개소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느티나무, 가시나무, 편백나무 등 총 3564주의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목 정보를 전산화해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수집·보유한 수목은 오전그린광장, 왕지어린이공원, 봉화산(죽도봉 일원), 국가정원 등에 총 172주를 이식·식재했으며, 추가로 5회에 걸쳐 57주를 수집해 관리했다.

특히 나무은행 수목을 활용한 조경사업은 설계가액 대비 약 42%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며, 예산 절감과 친환경 녹지 확충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나주, 코엑스서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로드쇼

4일 에너지밸리 투자 매력 홍보…나주 이전 유도

나주시가 에너지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6년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열고 에너지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과 연계해 추진되며 수도권 에너지 기업의 나주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에너지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사 첫날인 4일 오전 10시 개막식에서는 나주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강상구 부시장의 투자 매력 설명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의 2단계 비전을 담은 홍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

이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력산업 핵심 기반, 에너지 기본소득, 전력기자재 핵심 거점 등 나주의 미래 성장 전략이 집중 소개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에너지밸리 투자설명회를 열고 유망 에너지기업 9개사와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1:1 투자유치 데모데이(IR 피칭)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 지원에 나선다. 5일과 6일에는 전문가 특강과 명사 특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동신대학교가 참여하는 대학 홍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문가 특강은 5일 이형우 BK에너지 대표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 발표, 주대원 변리사의 에너지 분야 지식재산 동향 강연, 6일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의 분산에너지 시대와 에너지수도 나주의 역

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5일 오후 1시에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의 명사 특강이 마련됐다.

나주시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지난해 12월 유치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비롯한 첨단 과학도시로서의 강점을 부각하고 수도권 기업들이 나주로 이전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적 시너지와 각종 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기간 코엑스 A홀에 ‘나주 에너지밸리 홍보관’을 운영해 기업 홍보와 1:1 투자 상담을 실시 진행하고 ‘2026년 나주 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마케팅도 병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3년부터 이어온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는 에너지밸리 성장과 기업 유치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왔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한 나주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많은 혁신 기업이 나주에서 기회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여수 낭도항, 쾌적한 해양공간 탈바꿈

여수해양수산청, 어항시설 정비 사업 추진

여수의 섬 풍경 속에 자리한 낭도항이 어항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해양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낭도항 정비공사는 2023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번 4차분 공사에서는 기존 어항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비와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돌레길 일부 구간을 정비해 보

행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 제2 파제제 어항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게 지켜주는 바다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성능 보강 공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여수해수관 관계자는 “낭도항 정비사업은 보수를 넘어, 어항의 안전성과 이용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이다”며 “여수 관광 여향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